

# 잘나가는 메리츠화재... 김용범식 '선택과 집중' 통했다

(메리츠화재 부회장)

순이익 증가 등 상반기 호실적  
김용범 '장기인보험' 비중 확대  
점유율 상승 등 매출 성장 견인  
포트폴리오 성공적 개선 평가

메리츠화재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최근 5년간 장기인보험 비중을 늘리며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개선을 이뤄내면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올 2분기 매출액은 4조 9337억, 영업이익은 3964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1%, 33.3% 늘어난 수준이다.

합산비율(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계)도 100.7%로 전년 동기 대비 6.2% 포인트(p) 개선됐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별도재무제표 기준)은 22.8%를 달성했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실적 호조는 예정된 결과다. 올 1분기와 2분기 모두 안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메리츠화재 2021년 주요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분기			상반기		
	2021년	2020년	G/R	2021년	2020년	G/R
매출액	2,487,767	2,259,695	10.1%	4,933,698	4,482,168	10.1%
영업이익	219,645	145,658	50.8%	396,362	297,372	33.3%
당기순이익	161,534	105,763	52.7%	291,914	213,404	36.8%
합산비율	100.1%	105.1%	-5.0%p	100.7%	106.9%	-6.2%p

/메리츠화재

정적인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1분기 130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과 비교해 10.1% 증가한 2조4459억원을 거둬들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어난 1767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1057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내며 전년 동기보다 52.7% 올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각

각 10.1%, 50.8% 뛰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순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는 장기인보험의 성장세가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장기인보험은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보험 가운데 사람의 건강 등과 관련된 상품이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취임 이후 보험사 수익에 유리한 장기인보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최근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보장하는 '무'당신결에 돌봄 간병보험'도 내놨다. 해당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상품의 '특정2대중추진경제질환진단비' 및 '골, 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선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했다.

메리츠화재는 지속해서 장기인보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손보 상품의 점유율을 보면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각각 65%, 25%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일반보험이다. 12~13년 전에만 해도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장기보험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책성보험이고, 일반보험의 경우 대부분 기간이 짧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높은 장기보험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KB금융그룹 "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글로벌 캠페인 'RE100' 가입  
2040년까지 전력 전환 목표

KB금융그룹이 그룹 전체 계열사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은행지주사 최초로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협력해 시작했다. 현재 324개 글로벌 기업들(구글·애플·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SK하이닉스, SK텔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KB국민은행

레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했다.

KB금융그룹 측은 "탈석탄 선언, 탄소중립 목표 수립 등 국내 리딩뱅크로서 기후 변화에 대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더 클라이밋 그룹으로부터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KB금융은 RE100 이행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룹 사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RE100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협력 이니셔티브"라며 "ESG 선도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상생·인재 양성 등 사회적 책임에 '초점'

>> 1면 '카카오, 결국 백기'서 계속

대리운전 기사 수수료 체계 손질  
택시 등 종사자 복지 증진 강화  
김범수 의장 "성장방식에 변화"

골목상권 진출 직접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한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 미칠 사업적 영향을 고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에도 힘쓴다.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 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카카오공동체차원에서 추진 중인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대리운전, 택시를 포함한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을 기울인다. 현재 방안을 준비중이며, 연내 세부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

내 스타트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정밀지도 구축,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기술 확보 등에도 적극 나서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성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사업 진출 시에는 IT 혁신과 이용자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김범수의장(사진)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올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CEO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참가자들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女리더 육성 박차

'그룹 CEO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신한금융그룹이 여성리더육성프로그램인 '신한슈어로즈(SHeroes)' 선발 인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그룹 CEO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2018년 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신한 슈어로즈'를 출범하고, 지난해 3기까지 총 143명의 여성리더를 육성했다. 올해에는 4기 44명을 선발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그룹 멘토링 ▲인문학 및 최신 트렌드 중심의 특강 ▲네트워크 확장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그룹 CEO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용병 회장의 주관 하에 슈어로즈 멤버들과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을 공유하는 쌍방향 멘토링을 진행했다. 매주 소규모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조 회장은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조 회장은 "신한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성 리더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며 "고객관점에서 신한문화가 대전환되는 시점 그 중심에 여성 리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 4.7억달러 증가

달러화 예금 중심 늘어

외화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기업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에 나선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926억달러로 전월 말 대비 4억7000만달러 늘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달러화 예금을 중심으로 늘었다.

달러화예금과 위안화예금은 전월 대비 각각 7억달러, 8000만달러 증가했다.

/백지연 기자